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1, 73 - 89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김 효 정† 고 선 규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은퇴한 남자 노인 220명이었으며 은퇴 스트레스 척도, 노인 우울 척도(GDSSF), 결혼만족도 척도(K-MSI)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은퇴만족도가 우울증상을 매개로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한 Higginbottom, Barling과 Kelloway(1993)의 모형검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은퇴 스트레스, 우울,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노인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우울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만족도의 무효과모형,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해본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셋째, 결혼만족도의 부분매개모형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수립 정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의 은퇴 변인은 직접적인 경로로 은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경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결혼만족도는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효정,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Tel: 02-3290-2060, E-mail: 9484@hanmail.net

www.kci.go.kr

은퇴는 개인이 일생동안 종사해온 직업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기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기에 와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러한 은퇴가 개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인지 아니면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김애순, 윤진, 1995). 그러나 은퇴자의 3분의 1이 은퇴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Atchley, 1977) 은퇴에 따른 사회적 역할상실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직업은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년기 은퇴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지연경, 조병은, 1991).

은퇴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rris와 Cole(1985)은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퇴에 따른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Kuypers와 Bengtson (1973)에 따르면 은퇴로 인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상실은 노인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 만들며 이러한 평가는 자존심의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 경제력의 감소는 직장 동료와 친구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며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감소는 우울이나 불안을 초래하여 적응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Bromley, 1990). 이처럼 은퇴는 급격한 신체적 약화, 사회활동의 감소, 스트레스, 우울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Dorfman & Moffett, 1987) 이외에도 은퇴 이후 자살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따라서 은퇴 노인은 은퇴 후 상당한 은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중 은퇴 후 경험하게 되는 은퇴 스트레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은퇴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에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이 있으며 이 모델은 발생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바와 상황적 요인을 도입하여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Lowenthal, Thuner, & Chiriboga, 1975; George, 1980). 이 모델에 의하면 은퇴 스트레스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소,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포함한다(George, 1980). 이처럼 은퇴 스트레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은 은퇴 후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와 노년기 우울증의 관련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은퇴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약하지만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몇몇의 의미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Higginbottom 등(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는 정신건강의 손실을 초래하며 은퇴만족도는 우울증상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은퇴가 우울과 관련이 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은퇴자와 직업인의 우울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Butterworth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은퇴자는 직업인보다 우울을 포함한 정신장애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은퇴는 수입, 의미감, 사회활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은퇴자는

www.kci.go.kr

그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직업인과 비교해 낮은 정신건강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Moen, 1996; Bosse, Aldwin, Levenson, & Ekerdt, 1987). 은퇴자와 직업인의 우울비교 연구 이외에도 은퇴자의 우울 연구를 살펴보면 Tuohy, Knussen과 Wrennall (2005)은 50대 중반부터 점점 더 우울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하였으며 Richardson과 Kilty(1991)는 은퇴자의 우울과 불안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자는 직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은퇴의 문제는 남자 노인에게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더욱이 남자에게 일은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자아정체감을 유지시켜 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또한 일은 가정과 사회집단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Maddox, 1970; Elwell, Maltbie-Crannell, 1982). 그러므로 남자 노인들은 은퇴 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결혼생활을 포함한 가정에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인 직장생활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그들은 직장을 수입원과 동시에 인격의 전부로 여겨왔고 심지어 직장에서 취미생활, 여가생활마저 전념하는 경향이 있었다(박의련, 1989). 따라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남자는 은퇴 후 은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년기에 은퇴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측면은 부부관계이다.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노년기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Duval(1977)은 노년기란 자신의 은퇴와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시기로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노인들은 노화의 경험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한다(Carstensen, 1993). 특히 노년기의 긍정적인 결혼생활은 노인들에게 우울증을 감소시켜 주고 내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부부관계의 불만족, 갈등,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기능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Tower & Kasl, 1996; Kiecolt-Glaser et. al., 1988; Ross, 1995; Williams, 1988). 또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대현과 윤가현(1989)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 혼자 보내는 시간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깊은 고독감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정희영(1994)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배우자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낮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노년기의 연장은 부부의 상호의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김태현, 전길양, 1997).

특히 은퇴 후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친밀해져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1). 또한 Melton, Hersen, Van Sickle과 Van Hasselt(1995)

www.kci.go.kr

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적당한 수입이 있으며 부부관계가 친밀할수록 과도기로서의 은퇴는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인 직장생활에서 물러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은퇴한 남자 노인에서 부부생활의 만족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은퇴에 따른 부부관계의 연구는 크게 부부관계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연구와 변화를 지지하는 연구로 나뉜다. 지속성을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은퇴 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은퇴 이후에는 상호작용이 많아져 더 가까워지면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Harris & Cole, 1985). 그리고 현재 은퇴를 경험한 부부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규범이 강하므로 역할이나 가족생활이 변하더라도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욱이 여성은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은퇴 후에도 부부관계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Anderson, 1992). 이와는 달리 은퇴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를 지지하는 연구들도 있다. 남편의 은퇴 후 부부는 과거의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 부부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다양한 지원의 양과 내용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은퇴 후 부부관계는 상호간의 변화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Atchley, 1992).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부정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의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다.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들 중 가족 발달적 관점에 따르면 중년기 가족과 노년기 가족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편의 지위 변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기의 역할 전환은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에 긴장과 어려움을 준다고 하였다(Anderson, Russel, & Schumm, 1983).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간 활용이나 집안 일 등에 대해 의견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 특히 부인에게 남편의 은퇴는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Dorfman, 1992; Keating & Cole 1980). 그리고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부부는 은퇴 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관계에 긴장이 높아진다고 한다(Harris & Cole, 1985). 반면에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남편의 은퇴 후 직업 역할의 상실과 부모 역할의 감소는 부부가 함께 가사 노동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부부의 소속감과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켜 부부관계의 질이 예전에 비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Vinick & Ekerdt, 1991). 또한 은퇴 이후 친밀감의 욕구가 높아져 가치관이나 여가활동의 공유를 통해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Anderson, 1992; Bengston, Rosenthal, & Burton, 1990).

특히 부부관계를 질적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관심과 애정을 교류하며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노년기가 된다고 하였다(Perlmutter & Hall, 1985). 한국 노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변화순(1999)의 연구에 따르면 젊었을 때부터 남편의 가부장적 위치가 절대적일수록 노년기에는 부부관계가 악화되거나 냉랭한 관계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역할 수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 융통성과 이해를 보이고 어려울 때에도 협조

www.kci.go.kr

적이었던 관계의 경우는 노년기에 가사 노동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정서적 상호작용의 질은 은퇴만족도를 예측한다고 한다(Kupperbusch, Levenson, & Ebling, 2003). 노년기에 부부는 적극적인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은퇴 후 부부는 동반자적 특성을 지니게 되어 역할상실의 시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Atchley, 1992; Dorfman, 1992). Anderson(1992)의 연구에서도 은퇴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애정적 지원과 성격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결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노년기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적 지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부부끼리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88; Anderson, 199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이후 직업 역할상실은 부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부부 간에 상호지원의 증가는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와 잘 지내는 것은 은퇴 노인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상호작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기술한 전반적 불만족, 배우자의 애정이나 지지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과 정서적인 이해와 공감에 대해 기술한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여부와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찾아내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나 여가활동이 있는지 공유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기술하는 공유시간 갈등, 이 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은퇴는 삶의 과도기로서 이전의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있는 은퇴 노인들은 은퇴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은퇴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 후 역할 재조정이 잘 이루어져 배우자와 잘 지내는 것은 은퇴 노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은퇴 노인에 대한 연구는 은퇴 노인의 생활만족도, 은퇴 후 사회활동, 은퇴제도에 관한 변인 파악이 주된 것이었으며 은퇴 후의 역할 변화로 인한 부부관계의 질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였으나 은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은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역할을 규명한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만족도가 우울증상을 매개로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한 Higginbottom 등(1993)의 모형검증 결과를 기초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은퇴 만족도라는 개념이 은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여 은퇴한 남자 노인이 은퇴 후 겪는 구체적인 은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변인에는 은퇴 후 기간, 은퇴 연령,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 수립 정도, 은퇴 전 생활비 준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은퇴 이유, 은퇴시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www.kci.go.kr

서 이들 변인들은 그 수가 너무 많고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을 골라 구조방정식에 포함하고자 한다. 은퇴한 남자 노인의 은퇴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본 후 은퇴 스트레스가 높은 은퇴 노인은 우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은퇴 이후 직업 역할 상실은 부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부부간에 상호지원의 증가는 은퇴 노인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년퇴직 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은퇴 이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55세 이상의 사람이거나 퇴직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한 남자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신 질환이나 기질적 뇌장애 증후가 없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22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설문에 포함된 은퇴한 남자 노인의 평균 연령은 61.98(SD=5.09)세였다.

측정도구

건강상태 평가. 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Kroenke, Spitzer와 Williams(2002)가 개발한 The Patient Health Questionaire somatic symptom severity scale(PHQ-15)을 기초로 김승연(2005)이 일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3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2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계수)는 .80이다.

은퇴 스트레스. 노인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심은경(1983), 김종숙(1987), 최성재(1989) 및 George(1980)의 연구를 기초로 지연경, 조병은(1991)이 작성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소,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관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세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1이다.

노인의 우울 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GDSSF).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ilkh와 Yesavage(1986)가 개발한 GDS Short Form을 기백석(1996)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DSSF-K)를 사용하였다. GDSSF는 예/아니오

www.kci.go.kr

로 응답하는 양분 척도로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에서 15점의 점수분포를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점수 분포 상에서 5점 이하를 정상, 6점에서 9점까지는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을 우울증으로 구분하였다(기백석, 1996).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8이다.

결혼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 (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권정혜, 채규만(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K-MSI척도를 사용하였다. K-MSI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불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MSI의 총 14개 척도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이 네 개의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소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가 .9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86,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가 .86, 공유시간 갈등 척도가 .78이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은퇴 노인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SPSS 12.0과 AMOS 4.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은퇴 노인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표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우울을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9.71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단계의 변인에는 월평균 수입, 주관적 건강지각, 건강상태가 포함되었고 이 변인들은 모두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이 낮고 주관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며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 단계에서 투입한 변인들에 추가로 은퇴 후 기간, 은퇴연령,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수립 정도, 은퇴 전 생활비 준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은퇴이유, 은퇴시기의 은퇴 변인들을 모두 투입한 결과, 우울을 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은퇴 변인의 수가 너무 많아 은퇴 변인들 중에서 우울에 유의한 변인을 선택하기 위해 은퇴 변인들을 모두 투입한 결과, 유의한 변인은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수립 정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의하게 나온 이 세 변인만 따로 전 단계의 결과에 추가로 투입했을 경우 우울을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을 다 투입한 설명력과 불과 1%차이였다. 따라서

www.kci.go.kr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 대비 계획수립 정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변인만을 추가하였다. 유의한 변인만 추가했을 경우 은퇴 변인은 우울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25.57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세 개의 은퇴 변인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이 낮고 주관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며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고 은퇴 전의 직업에 불만족하고 은퇴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이 주요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우울을

표 1. 은퇴 노인의 우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변인	$b(\beta)$	t	R^2	R^2 변화량	F	df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월평균 수입	-.83(-.29)	-5.08***				
	주관적 건강지각	1.48(.27)	4.26***				
	건강상태	.34(.22)	3.53***	.29	.29	29.71***	3
2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월평균 수입	-.39(-.14)	-2.37*				
	주관적 건강지각	1.08(.20)	3.28***				
	건강상태	.24(.16)	2.68**				
	은퇴 변인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1.17(.20)	3.58***				
	은퇴대비 계획수립	.72(.16)	2.79**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81(.21)	3.49***	.42	.13	25.57***	6
3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월평균 수입	-.21(-.08)	-1.60				
	주관적 건강지각	.76(.14)	2.89**				
	건강상태	.03(.02)	.36				
	은퇴변인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62(.11)	2.37 *				
	은퇴대비 계획수립	.40(.09)	1.87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	.38(.10)	1.85				
	은퇴 스트레스						
	수입 감소의 상실감	.06(.04)	.53				
	일상생활의변화	.12(.07)	1.11				
	가정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11(.06)	.82				
	자아정체감의 상실	.19(.11)	1.42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09(.05)	.78				
	의미있는 생활 경험의감소	.22(.12)	1.48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	.16(.10)	2.11*				
	결혼만족도						
	전반적 불만족	.08(.10)	1.3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11(-.09)	-1.10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20(.22)	2.96**				
	공유시간갈등	.011(.07)	.97	.69	.27	25.13***	17

www.kci.go.kr

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우울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5.13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관적 건강지각, β=.14, p<.01,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β=.11, p<.05, 은퇴 스트레스 중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 β=.10, p<.05, 결혼만족도 중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β=.22, p<.01, 변인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이 나쁘고 은퇴 전 직업에 불만족하고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부정적이고 부부간에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갈등이 있을수록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al Equation Model; SEM)접근법에 의해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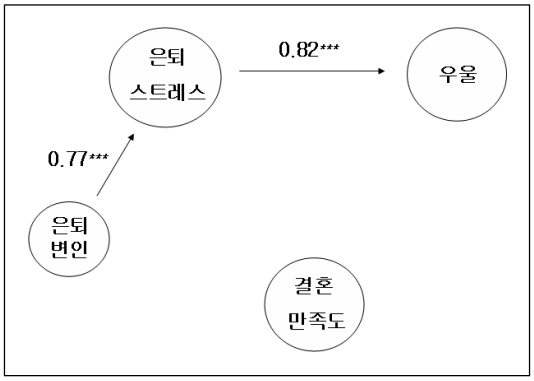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I - 무효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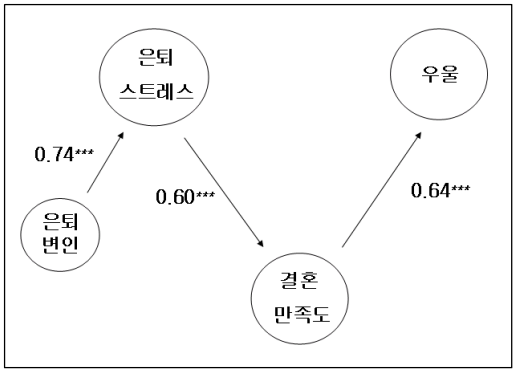

그림 2. 모형 II- 완전매개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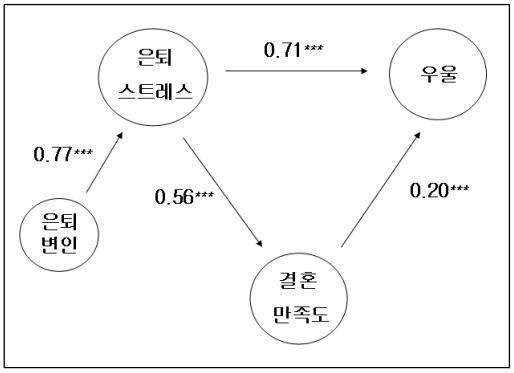

그림 3. 모형 III- 부분매개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001.

www.kci.go.kr

형은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 우울, 결혼만족도 이 네 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은퇴 변인에는 회귀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수립,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의 3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은퇴 스트레스에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소,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자아정체감의 상실,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포함되었다. 또한 결혼만족도에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 갈등이 포함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는 은퇴 변인이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은퇴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그림 1, 2, 3에는 모형 비교를 위해서 결혼만족도의 무효과모형, 완전매개모형, 부분매개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접근법에는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권한 CFI(Comparative Fit Index), NNFI(Nonnorm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표 2. 결혼만족도의 매개 효과에 대한 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모형	X^2	*df*	CFI	NNFI	RMSEA
모형Ⅰ-무효과	302.436	117	0.978	0.971	0.085
모형Ⅱ-완전매개	325.82	116	0.975	0.967	0.091
모형Ⅲ-부분매개	217.58	115	0.988	0.984	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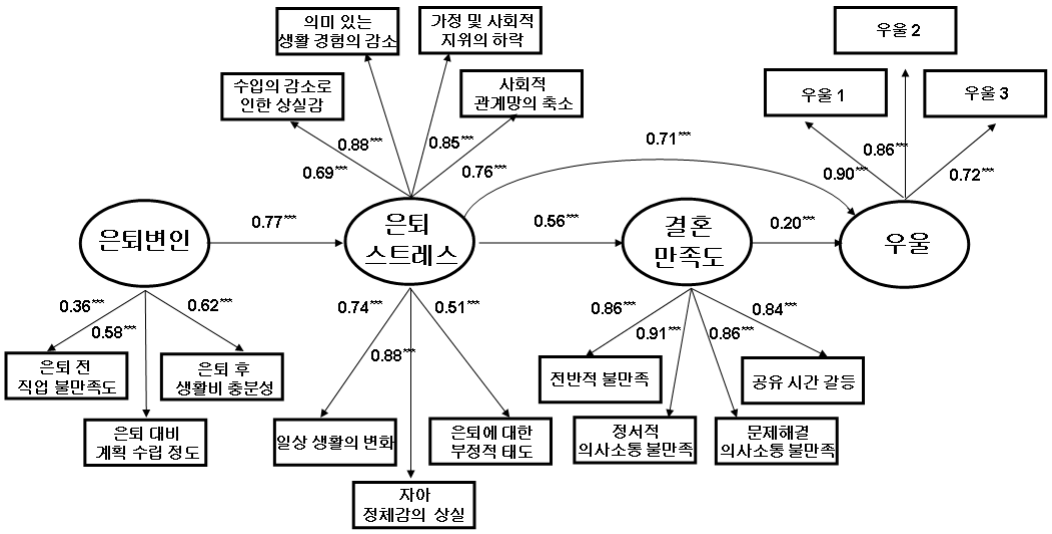

그림 4. 부분매개모형의 경로분석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001.

www.kci.go.k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합치들은 .90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각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형 Ⅰ, Ⅱ, Ⅲ의 경로계수를 검토해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모형 Ⅲ이 모형 Ⅰ, Ⅱ에 비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Ⅲ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으로 선정한 모형 Ⅲ을 토대로 측정 변인들이 각각의 이론 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종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은퇴 변인이 은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은퇴 변인은 은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77, p<.001. 이는 은퇴 전의 직업에 불만족하고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활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변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은퇴 변인의 특성이 잘 나타날수록 은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살펴보면 은퇴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71, p<.001. 이는 은퇴 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은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56, p<.001. 이는 은퇴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 β=0.20, p<.001. 이 결과는 결혼 생활에 불만족도가 높으면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결혼만족도가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Higginbottom 등(1993)의 모형검증 결과를 기초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께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우울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변인들 중에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관적 건강지각,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은퇴 스트레스 중에서는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결혼만족도 중에서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의 변인들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특히 자신이 내리는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 건강지각 변인이 유의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보

www.kci.go.kr

다는 건강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역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부부간에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갈등이 있을수록 우울하다고 나타난 결과는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구체적인 측면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은퇴 스트레스의 소척도 중에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즉 그것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태도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은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의 은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요소이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소척도에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여부,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여부와 같은 실제적으로 부부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이 은퇴 노인의 우울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퇴 변인,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의 경로를 부분매개모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은퇴 변인은 은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변인들 중에서 본 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은퇴 변인은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 은퇴대비 계획수립 정도, 은퇴 후 생활비 충분성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이들 외에도 은퇴연령, 은퇴시기, 은퇴 후 기간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직업에 불만족하고 은퇴 전에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활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변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은퇴 변인의 특성을 잘 나타날수록 은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George(1980)는 은퇴 이전의 직업과 은퇴 이후의 적응관계는 한마디로 일축하기 어려우며 그가 처한 상황 즉 건강, 경제적 능력, 사회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 과거의 은퇴 전 직업불만족도가 은퇴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은퇴연령에 이르게 되면 가족생활 주기 상 자녀의 학비 혹은 출가로 인하여 가계지출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불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은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퇴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수록 상실감과 무료함 등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은퇴대비 계획수립은 은퇴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은퇴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스트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는 은퇴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은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가

www.kci.go.kr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퇴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에서 높은 갈등을 보여 은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불만족도가 높으면 우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이 결과는 노인에게서 결혼 기능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평가한 연구(Bookwala & Jacobs, 2004; Standberg & Harper, 2000)와 높은 결혼 불화는 높은 우울과 연관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Whisman & Uebelacker, 2006)와 일치한다. 따라서 은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결혼만족도는 이들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은퇴만족도가 우울증상을 매개로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한 Higginbottom 등(1993)의 연구와는 다른 경로로 타당성을 입증해 낸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은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퇴 노인의 우울을 종속변수로 두어 은퇴 스트레스가 어떤 경로로 우울에 가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에 그들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06)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에 비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자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점점 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자 노인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결혼만족도의 측정에서 부부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의 은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우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부부 양쪽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만족도의 측정에서 본 연구는 부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네 개의 소척도를 선택하였다. 이에 부부관계의 다른 다양한 측면을 평가한 소척도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결혼만족도의 좀 더 다양한 측면들과 은퇴 스트레스, 우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은퇴 스트레스, 우울,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은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다양하게 경험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은퇴 후 기간이 짧은 남자 은퇴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은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은퇴 전 은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은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은퇴 노인들이 은퇴로 인하여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www.kci.go.kr

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은퇴 노인의 우울을 이해할 때 은퇴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함께 다뤄야 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자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퇴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은퇴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은퇴 노인의 우울을 다룰 경우에 은퇴 스트레스와 함께 결혼만족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50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김승연 (2006). 배우자 사별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 행동의 조절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순, 윤진 (1995). 은퇴 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김종숙 (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현,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박의련 (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화순 (1999). 여성노인의 부부관계, 노인복지 정책 연구, 14, 205-237.

송대현, 윤가현 (1989). 한국노년학 노년기의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 64-78.

심은경 (1983). 은퇴한 노인의 가정생활적응에 대한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 이순형, 홍숙자 (1991). 가족발달학, 서울, 교문사.

정희영 (1994). 남자노인들의 사회관계와 정서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연경, 조병은(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최성재 (1989).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42, 233-258.

통계청 (2006). 경제활동 인구조사.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Anderson, S. A., Russel, C. S. & Schumm, W. A.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27-139.

Anderson, T. B. (1992).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 wife and retired-wife couples. *Families and Retirement*, 174-188. Newbury Park:Sage.

Atchley, R. C. (1977).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Atchley, R. 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 Szinovacz, D. J. Ekerdt, & B. H. Vinick(Eds.). *Families and Retirement,* 145-158. Newbury Park: Sage.

Bengston, V.L., Rosenthal, C., & Burto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www.kci.go.kr

Sciences(3rd ed.), R. H. Binstock and L. k. George,(Eds.). 236-287, in San Diego: Academic Press.

Bookwala, J., & Jacobs, J. (2004). Age, marital processes, and depressed affect. *The Gerontologist*, *44*, 328-338.

Bosse, R., Aldwin, C. M., Levenson, M. R., & Ekerdt, D. J. (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4)*, 383-389.

Bosse, R., Aldwin, C. M., Levenson, M. R., & Workman-Daniels K. (1991). How Stressful is Retirement?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16(1)*, 9-14.

Bromley, D.B. (1990). *Behavioural Gerontology*, Chichester: Wiley & Sons.

Butterworth, P., Gill, S. C., Rodgers, B.,Anstey, K. J., Villamil, E., & Melzer, D. (2006). Retirement and mental health: Analysis of the Australian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ocial Science & Medicine, 62(5)*, 1179-1191.

Carstensen, L. L. (1993).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331-338.

Dorfman, L., & Moffett, M. (1987). Retirement satisfaction in married and rural women. *The Gerontologist, 27*, 215-221.

Dorfman, L.T. (1992). Couples in Retirement: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M. Szinovacz, D.J. Ekerdt & B. H. Vinick (Eds.). *Families and Retirement*, 145-158.

Duval, E.M. (1977). *Aging Family Members Marrige and Family Development*. J.B. Lippincott, 385-406.

Elwell, F., & Maltbie-Crannell, A.D. (1982). The Impact of Role Loss upon Coping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2)*, 223-232.

George, L. K. (1980). *Role Transition in Later Lif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Harris, D. K., & Cole, W.E. (1985) 노년사회학 (*Sociolgy of Aging*), 최신덕(역). 서울; 경문사.

Higginbottom, S. F., Barling, J., & Kelloway, E. K. (1993). Linking Retirement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diational Model. *Psychology and Aging*, *8(4)*, 508-516.

Keating, N., & Cole P. (1980). What do I do with him 24hours a day? Changes in the housewife role after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0*, 84-89.

Kiecolt-Glaser, J. K., Kennedy, S., Malkoff, S., Fisher, L., Speicher, C.E., Glaser, R. (1988). Marital discord and immunity in males. *Psychosomatic Medicine*, *50*, 213-229.

Kroenke, K., Spitzer, R. L., & Williams J. B. W. (2002). The PHQ-15: validity of a new measure for evaluating the severity of somatic symptoms. *Psychosomatic Medicine, 64(2)*, 258-266.

Kupperbusch, C., Levenson, R. W., Ebling, R. (2003). Predicting husbands′ and wives′ retirement satisfaction from the emotional qualitie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3), 335-354.

Kuypers, J. A., & Bengtson, V. L. (1973). Competence and social breakdown: A social-psychological view of aging. Human Development, 16(2), 37-49.

Lee, G. R. (1988). Marital intimacy among older persons: The spouse as confidant. Journal of Family, 9, 273-284.

Maddox, G. L. (1970).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www.kci.go.kr

Gerontologist, 10, 14-18.

Lowenthal, M. F., Thurnher, M.,& Chiriboga, D. (1975). Four Stages of Life: A Comparative Study of Women and Men Facing Transitions.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Melton, M. A., Hersen, M., Van Sickle T. D., & Van Hasselt, V. B. (1995). Parameters of marriage in older adul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8)*, 891-904.

Moen, P. (1996).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retirement, gender, and well-being.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 131-144.

Perlmutter, M., & Hall, E. (1985). *Adult development and Aging*, John Wiley & Sons, Inc.

Richardson, V., & Kilty, K. M. (1991). Adjustment to retirement: Continuity vs discontin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3(2)*, 151-169.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Sheilkh, J. A.,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Y: The Haworth Press.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Standberg, J. G., & Harper, J. M. (2000). In search of a marital distress model of depression in older marriages. *Aging and Mental Health*, *4(3)*, 210-222.

Tower, R., & Kasl, S. (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couples. *Journal of Gerontology* , *51B(3)*, 115-129.

Tuohy, A., Knussen, C., & Wrennall, M. J. (2005). Effects of Age on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Retired Police Officers. *Psychology and Aging*, *20(2)*, 202-210.

Vinick, B., & Ekerdt, D. J. (1991). The transition of retirement: Responses of husbands and wives. In B.b. Hee & E. Markson(Eds.), *Growing old in America*, 45th ed, New brunswick, N.J: Transition Books.

Whisman, M. A., Uebelacker, L. A., Tolejko, N., Chatav Y., & McKelvie M. (2006). Marital Discord and Well-Being in Older Adults: Is the Association Confounded by Personality? *Psychology and Aging*, *21(3)*, 626-631.

Williams, D. G. (1988). Gender, marriage and psychosoci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9*, 452-468.

원고접수일: 2007년 9월 16일
수정원고접수일: 2008년 1월 9일
게재결정일: 2008년 1월 19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1, 73 - 89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the retired older men

Hyo Jung Kim Seon Gyu Ko Jung 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relationship that retirement stress have an effect on depression among the retree.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220 retired older men. For the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retirement stress scale,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scale, Geriatric Depression scale. The mediating effect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 of Higginbottom, Barling, & Kelloway(1993)'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relation to retirement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ffects of demographical variables, retirement variables, retirement stress,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on, hierarchical regression revealed that retirement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explained 27% of total variables in the retired older men. Second, The partial mediation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showed better fit indices than alternative models. Third, the paths of partial mediational model indicated that career dissatisfaction of pre-retirement, plan of retirement preparation, living expenses' sufficiency of post-retirement were significant variables among retirement variables that explained retirement stress. And retirement stress was significant which explained depression. Moreover,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stress and depression. Therefore,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was examined on relationship that retirement stress have an effect on depression.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retirement stress,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www.kci.go.kr